

 기획재정부		<b>보도자료</b>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6. 2. (수) 08: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최정빈 사무관 99jbchoi@korea.kr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하다애 사무관 daae0517@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제정책과장 김민표 (044-202-6640)		이정용 사무관 lly0710@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천영평 (044-215-3902)		박영주 사무관 pyz1004@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김형식 (044-201-2231)		손경문 사무관 philoso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윤성혁 (044-203-4210)		허유석 사무관 jameshur89@korea.kr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임태훈 (044-200-5440)		김지현 사무관 jiihyun77@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조경원 (042-481-4537)		장용희 사무관 yhjang92@korea.kr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 나웅진 (044-201-3909)		이민기 사무관 mkleee@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 (044-200-4551)		박진석 사무관 sham23@korea.kr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이정현 (042-481-2530)		유달순 사무관 ohmydal@korea.kr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한 민 (042-481-7810)		조광선 사무관 kwangseoncho@korea.kr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장 문경례 (042-724-7183)		김해영 사무관 khy2233@korea.kr

## 제목 :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2(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금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점검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 ①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② 최근 물가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며,  
지난 4월 2.3%에 이어 2%대 물가상승률을 지속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0)0.5 ('21.1)0.6 (2)1.1 (3)1.5 (4)2.3 **(5)2.6**

❶ 4월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작년 5월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중 최저치( $\Delta 0.3\%$ )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0.1)1.5 (2)1.1 (3)1.0 (4)0.1 **(5) $\Delta 0.3$**

\* 석유류가격상승률(전년동월비, %): ('20.1)12.4 (2)12.5 (3)6.6 (4) $\Delta 6.7$  **(5) $\Delta 18.7$**

-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월비 물가상승률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0.1%를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전월비, %): ('21.1월)0.8 (2)0.5 (3)0.1 (4)0.2 **(5)0.1**

❷ 4월과 동일하게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일시적 공급측 요인이  
5월 물가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

\* 농축수산물, 석유류의 기여도가 1.8%p로 전체 물가상승률 2.6%의 69%를 설명

-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3개월 연속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  
하였으나, 작년 작황부진,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이 잔존하며  
아직은 높은 수준을 유지(5월 12.1%)

\* 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전월비, %): ('21.1월)3.3 (2)4.5 **(3) $\Delta 1.3$  (4) $\Delta 0.5$  (5) $\Delta 1.0$**

- 참석자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국제기구 및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

\*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한은) 1.8%, (OECD) 1.8%, (KDI) 1.7% (IB 평균) 1.7%

-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는 수확기 도래 및 산란계 회복\*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 확대로 국제원자재 수급균형이  
회복되고, 3분기 이후 기저효과가 완화된 점 등을 고려

\* 수확기: 봄배추(5~7월), 사과·배(8~10월), 쌀(10~11월), 가을배추(11~12월)  
산란계 수 전망(만수): (평년)7,053 ('21.6.1)7,023 → ('21.7<sup>e</sup>)7,182 → ('21.8<sup>e</sup>)7,343

\* 국제유가(두바이유) 전망(CERA, 달러/배럴): ('21.2/4)63 (3/4)67 (4/4)66

□ 다만, 기상불안, 원자재 병목현상 등 예상치 못한 대내외 이벤트, 소비회복에 따른 서비스가격 상승, 경제주체들의 기대변화 등 물가지표 변동성을 확대시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부터 즉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

① 계란,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수급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 계란 수입물량\*을 5,000만+a개로 확대하고,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 (1~3월) 6,400만개 → (4월) 4,000만개 → (5월) 4,000만개 → (6월) 5,000만개+α

\*\* 품목 : 계란 및 가공품 7종, 세율 : 기본 8~30 → 0%,

물량/기간 : (현재) 5만톤, 6월말 종료 → (연장) 3.6만톤, 연말 종료

-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6월중 할인판매 실시

② 기업의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금융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

- 조달청 보유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을 대폭 확대(1~5월 2.6만톤 → 6월 2.9만톤)하고, 판매할인율도 상향(주석 1→2%, 아연 0→1%)

- 외상구매시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추가 상향하고, 대여판매시 대여기간을 6개월로 3개월 연장

\* 현재 중소 2% 중견 2.2~3% 대기업 4.2%인 외상판매 이자율도 하향 조정 검토

- 원자재 구매 용도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조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융자 허용

③ 향후 서비스가격 상승에 대응한 생계비 부담 완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음

-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  $\Delta 0.2\%p$  인하, 융자규모 확대 검토

\* 현재 식품제조·가공 중소기업 대상 국산원료 매입자금 20~25%로 융자 지원(총 1,440억원)

- '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6.24~7.11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mailto:moefpr@korea.kr)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이덕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부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5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특징 】

방금 전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지난 4월 2.3%에 이어 2개월 연속 2%를 상회하였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월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역시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물가상승률은  
코로나 충격에 의한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류 가격 급락( $\Delta 18.7\%$ ) 등으로  
지난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낮은  $\Delta 0.3\%$ 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최근의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전월비 상승폭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4월 0.2% → 5월 0.1%)

5월 상승률 2.6% 중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는 1.8%p(전체의 69%)로,  
4월과 마찬가지로 공급측 요인의 변동성 확대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비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작황 부진, 급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큰 폭 상승했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석유류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제유가가 작년 5월은 30불대였으나,  
금년 2월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인 60불대를 회복하며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13.4→23.3%)되었습니다.

## 【 향후 물가 전망 】

다만 금년들어 나타난 가파른 상승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6월의 경우 작년 물가상승률이 0%로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가  
유지되면서 2%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충격이 해소되며,  
상방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분기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농축산물은  
쌀·사과·배 등 주요 작물의 수확기 도래,  
산란계 수 회복, 작년 3분기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기상충격이 이어지지 않는 한  
예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는 3분기를 정점으로 60불대에서 유지되고  
다른 원자재도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급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 분석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1분기보다 2분기(4,5월)에는 매우 커졌지만,  
3분기 이후는 추가적인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주요 기관들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습시다만, 모두 2% 이내로 전망한 점도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기저효과와 증고차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PCE는 3.6%)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커져가고 있지만 미 당국자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며 고질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 리스크 요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지표는 대내외 이벤트, 경기회복속도, 경제주체들의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 장마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여건 악화, 예측과 달리 원자재 병목현상 해소시점이 늦어질 가능성, 백신보급에 따른 소비회복이 서비스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은 하반기 물가여건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경제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중 일부가 현실화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경제상황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 향후 대응 】

이러한 측면에서 하반기 물가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연간 전체로는 금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지표 변동성을 확대시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축산물 수급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계란,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란은 전월보다 1,000만개 많은 5,000만+α개를  
6월중 수입하고,  
당초 6월말 종료예정이었던 긴급할당관세지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형 가공업체 등 수요처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수입 계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량을 확대하고,  
소규모마트, 전통시장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은 가을 수확기 도래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도 2만톤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수확기 도래,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등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양파·마늘·배추 등은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6~9월 계절적 가격 상승 경향이 있는 돼지고기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6월중 최대 3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특정부위로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원자재가격 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곡물은 기업의 사료원료 확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2.0%인 원료구매자금 지원금리를 △0.2%p 인하하고,  
통관지원과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조달청 비철금속 할인방출을 4개월 연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6월은 방출 물량을 약 3만톤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  
주석과 아연의 판매할인율도 1%p 상향하겠습니다.

외상구매의 경우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상향하고,  
대여판매시 기간도 6개월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철강은 먼저 철강사 협조를 통해  
2분기 철근은 전 분기 대비 22%, 후판은 7.8% 추가 생산하고,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생산품목 조정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합동점검반 가동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철강재 가격 급등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요건완화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석유류도 국제유가 동향 및 유통질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유사시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생제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아가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소가공식품, 외식업체 비용 부담이  
상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현재 2.0%)를 △0.2%p 추가 인하하고,  
지원규모(1,440억원)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일행사를 통해 소비자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6.24~7.11일간 '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됩니다.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일반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대규모 세일행사를 계획중입니다.

상반기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도 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수산물 할인행사도 하반기중 5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 【 마무리말씀 】

최근 우리경제 회복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불안정해지는 경우  
국민들의 회복 체감도가 낮아지고,  
경기회복 자체를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